축복 먹고 체하면 약도 없다

(신명기 33:1~29)

1.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2.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3.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4.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5.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에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축복 먹고 체하면 약도 없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축복 먹고 체하면 약도 없다'
흔히 '물먹고 체하면 약도 없다'는 말을 하는데 '축복 먹고 체하면 약도 없다'는 말은 '소화를 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해진미를 앞에 두고도 죽만 먹어야 하는 처지라면 복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소화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민에게는 하루하루 모든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복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는 삶이 주어지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를 당하게 되고, 베드로 사도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어도 내 마음에는 그것이 복인 줄 알게 되고, 복을 복으로서 소화할 수 있는 선민에게는 다 복입니다. 이렇게 복을 깨닫는 것 자체가 복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인데, 복을 소화하지 못하는 형편일 때에는 복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인데 우리는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복을 위해서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 '축복 소화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북한에서 무역업을 하는 큰 부잣집의 이야기입니다. 당국이 사회경제로만 배급을 주며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력갱생을 모토로 걸고 장마당이 형성되고 점점 더 시장경제가 인민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일제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아주 고가의 전자제품들을 들여놓는 부잣집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부잣집 아이의 친구가 방문했던 기억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를 보고 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봤더니 옷이 차곡차곡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냉장고를 서랍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

이고, 세탁기로도 세탁을 못해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양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기가 하루에 한두 시간도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양에는 50층짜리 고층아파트도 즐비한데,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아서 35층에 집을 얻은 당 간부는 걸어 다녀야 하고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기가 없으니 펌프가 돌지 않기 때문에 35층을 내려와서 물을 길어서 올라가야합니다. 개인이 비싼 돈을 들여서 일제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를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전체의 기간시설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귀중한 가전제품들이 손님들에게 보여줄 장식품이 되었고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자제품 같은 문명의 이기를 복으로 비유하자면, 복을 받기는 했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민에게 복을 주시기는 하는데 소화를 못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사회 기간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내 삶의 구조가 복을 소화할 수 있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갓 쓰고 자전거 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 “갓 쓰고 당나귀 타고 다니던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대적 문명에서 뒤떨어진 조선 시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갓 쓰고 당나귀 타고 다니기, 갓 쓰고 자전거 타기, 갓 쓰고 구두 신기, 갓 쓰고 넥타이 매기’ 등의 말이 나타났습니다. 전혀 격에 어울리지 않게 차려입은 것을 놀림조로 이르는 속담으로 개화초기의 실상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서양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통째로 변한 것입니다. 결국 전기, 상하수도 시설, 도로, 항만, 공항 같은 모든 기간시설을 확충하고서야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배, 비행기 같은 서구 문명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구문명을 소화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고 개인도 서구문명을 소화하게 된 것입니다.

축복 소화불량의 대표적인 예는 가나안 정탐사건입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이 정탐보고를 하고 이에 동조한 이스라엘 성인들이 결국 38년 광야생활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그 누구도 소화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으로 복을 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 주시면 그대로 이루어 질 일인데도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들인 뒤에 소화를 못하면 약도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느보 산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기 전에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축복을 해줍니다. 이 ‘축복을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인간의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로부터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받으라고 임의대로 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축복해주려는 상대방에게 어떤 복도 내릴 계획이 없으신 상태인데 내가 축복함으로서 그 때부터 복이 임하는 법은 없습니다. 선민으로서 ‘선민에게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실 계획이 전제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의 계획이 하나님 속에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축복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갈망하고 타인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내게 과연 축복 소화력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르우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축복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축복을 소화할 수 있는 내 삶의 기간시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냉장고를 들여오려면 내 삶에 기간시설이 확충되어야 함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삶의 구조가 복을 소화할 수 있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파별로 축복을 한 뒤에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충적으로 복을 소화할 수 있는 선민의 삶의 구조가 어떠한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구조가 어떠해야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소화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고 하시고 2~5절까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축복을 할 것인데 그 복이 너희에게 실제로 임하게 될 때에 그 복을 소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구조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라는 이야기로 내용적으로는 그런 구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일만 성도'는 지상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만 명의 거룩한 존재들 가운데서 천군천사를 거느리고 내려오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축복에 앞선 모세가 하신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얘깁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종교의 신과는 달리 선민들에게 찾아오셨음으로 인해서, 선민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삼각관계입니다.
선민의 삶에 주어져 있는 첫 번째 상황은 세상 전체와 나와 하나님이라는 삼각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심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은,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되는 구조라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복을 주셔도 체하고 맙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기존의 인간사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있고 각 나라마다 내가 속한 인간세상이 보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인간세상을 내 마음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인간세상의 흔적조차 남지 않게 마음에서 빼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먼저 우리로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인간세상의 의미가 완전히 제로가 되어야만 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면 복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인간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목숨을 걸고, 인간세상이 나를 얼마

나 필요로 하느냐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경쟁에서 내가 얼마나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인간세상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얼마나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세상의 의미가 내 마음에서 제로 된다.'는 것은 기존의 인간세상을 과제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관심, 세상의 필요, 세상의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라고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세상에서 벌어지는 요구사항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복을 구하니 복이 임하지도 않고 임한 복도 소화를 하지 못하는데 그건 복도 아닙니다. 인간세상이 없는 것처럼(투명세상인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부를 잘 하면 서울대 상대나 연대 상대를 가고, 권력을 쥐려면 서울대 법대나 고대 법대를 갑니다. 그러나 나도 공부를 잘하니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수능 시험성적이 얼마가 나왔든지 간에 그것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능성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하나님으로 출발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성적이 좋게 나왔다면 이어져서 서울대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요지는 결코 세상의 기준과 요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첫 번째 요인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고 발판으로 삼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떠돌이로 살았습니다. '떠돌이로 산다.'는 의미는 '생을 위한 발판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선민이라면 내 생애의 발판은 내 집안, 출신, 학력, 경제력, 외모, 타고난 능력, 자격증, 다양한 스펙, 연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서 출발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 내 마음이 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오직 중요한 것은 딱 하나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 능력, 재력, 스펙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대해서 세상전체가 투명하게 취급당하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목적과 이유가 나오는 삶이 선민의 삶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전체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더 무게감을 둘 수 없다면 복을 소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앞선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도 이것만 준비되면 모든 순간이 복된 길이 됩니다. 우리 길은 하나님께서 인간세상을 백지로 여기시고 내시는 길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길이 있습니다. 스카이 대학을 가고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번듯한 집안에서 아내를 얻는 엘리트 코스가 있어도, 하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백지

로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은 인간세상의 길과는 상관이 없는 길이에요. 인간 세상에 있는 기본구조를 이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에 주님께서 요14:30절에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고 하십니다. 요19:10~1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라고 하십니다. 빌라도를 이용하시지만 빌라도에게 구속되지 않으십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떠돌이 집안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셔서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드십니다. 세상에 있는 길은 애굽을 왕래하는 대상들을 이용해서 없는 길을 만들어 내시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건 애굽의 법 제도입니다. 법 제도를 이용해서 없는 길을 내십니다. 없는 길은 히브리 떠돌이 집안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까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이미 나있는 길을 좇으며 그 길을 잘 가기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비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이 투명하게 여겨져야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의미가 있고, 소화력이 있어서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전제하에 요구되는 두 번째가 모세가 축복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나옵니다. 26~27절에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라고 하십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내가 신경을 써야 될 존재가 하늘의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신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나님을 세상보다 우선적인 현실로 인정하고, 세상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제로가 됩니다. 세상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기 위한 것으로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은 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 영원한 처소를 삼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팔이 왜 내 아래에 있을까요? 내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원한 처소로 삼고 올라갔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내 마음은 내 인격이고 그게 나입니다. 하늘로 올라간 내 마음 아래에는 몸이 남아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팔이 펴지신다는 것인데 이 구조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안기면, 내 몸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팔을 펴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라고 하십니다. ‘야곱의 샘’은 우리를 뜻하는데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 됩니다. 하늘의 것이 내려와서 솟아나는 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조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세상이 전부일 것이지만, 찾아오셨기 때문에 세상은 밀려나고 백지 같고 투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이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관심의 대상이 되시는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구조이고 기간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몸은 샘이 되는데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서 하늘의 계획과 하늘의 은총과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복이 솟는 샘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샘을 떠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샘의 구조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매 순간이 다 복이 되는데 복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음은 하늘을 처소 삼아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고, 아래에 있는 몸은 샘이 되어서 하나님의 팔이 하늘의 모든 은혜를 세상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 기간시설의 구조가 갖추어지고 유지되면 단 1초도 예외 없이 복된 시간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가 없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기간시설이 없는 북한에서 비싼 돈을 들여 냉장고와 세탁기를 들여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사건 때처럼 축복에 체해서 약도 없이 큰 불행을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원하기 전에 축복과 복을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을 먼저 점검하고, 매 순간 내려오는 복을 소화할 수 있기 위한 내 삶의 기간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두 지파별로 내려지는 모든 축복은 주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서 나에게 임하는 축복이 됩니다. 그 축복의 내용 앞뒤로 축복을 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서 십자가 생활화를 풀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국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하늘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처소 삼아 하늘로 올라가는(승천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던 동선이 야곱의 샘으로 표현되면서, 하늘에 올라가 있는 내 마음 아래에 있는 몸을 통해 은혜가 넘쳐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마시게 되는 샘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십자가 생활화를 풀어낸 것이고 십자가 생활화가 모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복과 축복을 원하기 전에 저의 소화력을 먼저 보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축복을 소화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간시설을 갖추기 위해 오늘도 시시각각 십자가를 생활화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